

규율 · 헌신으로 하나의 팀 만든 축구부 주장 48년 만의 정상... 선수 노력 결실 맺다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축구부 주장
이호연(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매 호마다 체육부 선수들을 직접 만나 그 목소리를 담아내려 한다. 성적과 기록뿐만 아니라, 종목을 향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 두 번째 주인공으로, 지난 7월 우리학교를 48년 만에 대학추계연맹전 정상으로 이끈 축구부 주장 이호연(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를 만났다.

48년 만의 추계연맹전 우승
“쉽게 지지 않을 끈끈한 팀”

지난 7월, 우리학교 추계연맹전 우승의 중심에는 주장이자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미드필더 이호연 선수가 있었다. 48년 만의 우승인 만큼 축구부에 의미가 컸다. 우승 이후 학교에서 마련한 축하 자리에선 “우리학교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는 이호연 선수

(사진= 이호연 선수 제공)

육대학 학장과 동문회장의 축하도 받았다. 이 선수는 “우리 선수들 노력의 결실로 느껴졌다”며 “누구 한 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했다.

팀 우승에 개인상까지 품에 안으며 “너무 좋아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회상한 이 선수. 하지만 이 선수는 고교 시절 우리학교 진학이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었다고 한다. 프로축구 선수로의 진로를 목표로 삼았기에 대학 진학은 내심 아쉬운 결정이었다. 당시 우리학교가 축구 강팀이 아니었던 점도 한몫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어느 팀과

붙어도 쉽게 지지 않을 만큼 강하고 끈끈한 팀이 됐다”고 자부했다. 이러한 자부심과 자신감에는 그가 주장으로서 축구부를 위해 쏟았던 그동안의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 위해
팀 분위기 결집 노력해

이 선수는 2학년이던 지난해 11월 축구부 주장으로 임명됐다. 이 선수는 “규율을 중요시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습관을 보고 감독님께서 주장으로 정하신 것 같다”며 “주장을 맡기시면서 ‘모두가 하나의 목표

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감독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선수는 팀 분위기에 변화를 줬다.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운동 시간, 점호 시간 철저히 지키기’, ‘운동장에서만 큰음은 축구에만 집중하기’ 등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점을 강조했다. 이 선수는 “1학년 때만 해도 ‘대학생으로선 편하지만, 축구선수로서는 하면 안 될 것들’이 분명히 팀에 있었다”며 “축구를 위해서 모였으니까 내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수들은 더욱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훈련에 임했다. 주장의 노력으로 팀 분위기는 하나의 목표로 결집했다. 우승 직후 이준희(스포츠지도학 2024) 골키퍼가 “팀의 체계를 잡으려는 주장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한 것은 주장의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음을 방증한다.

이 선수는 리더인 만큼 운동장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 선수는 “경기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에너지를 많이 주려고 노력했다”며 “축구는 게 즐거워야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훈련할 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록 했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위닝 멘탈리티’ 갖춘 축구부
U-리그 우승까지 도전

우승은 팀이 또 한 번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 선수는 “우승을 한 것만으로도 인생에 있어서 각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우승팀이라는 자부심과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축구부는 U-리그 우승에 중요한 5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울산대에 이은 2위다. 이 선수는 “추계연맹전 결승에서 만났던 광운대가 복수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리그에서 대패했던 울산대전도 남아있어서 두 경기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로, 경기 안에서도 팀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이다. 그는 “우리학교 선배인 고승범(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나 수원 삼성의 이규성 선수 같은 미드필더가 되고 싶다”며 “우리학교에서 많은 우승을 하고, 잘 안 풀릴 수도 있겠지만 프로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는 게 목표”라고 다짐했다.

동대문구 3개 대학 체육 교류전 ‘2025 역동전’, 2일부터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서울】동대문구 3개 대학(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이 함께하는 체육 교류전 ‘2025 역동전’이 오는 2일부터 11일 동안 열린다.

동대문구 3개 대학 연합 축제 ‘삼동제(TROIKA)’의 일부인 역동전은 각 대학의 스포츠 기구가 공동 주관하며, 2019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1~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다.

주최 측은 “역동전을 ‘매년 기다려지는 축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 학교에 있는 대동제처럼 9월이 되면 모두가 역동전을 기다리고 경기와 응원을 준비하는 큰 행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각 종목은 ▲경쟁전 ▲교류전 ▲FESTA로 구분된다. 경쟁전에선

남/여 축구·농구·e스포츠(리그오브레전드, FC온라인) 경기가 열리며, 선발전을 통해 선출된 각 학교 대표팀이 경기를 치른다. 교류전에선 각 학교의 대표 동아리끼리 맞붙는 야구와 테니스 경기가 열린다. 야구는 중앙동아리 브레이브스가, 테니스는 중앙동아리 KUTA가 출전한다. FESTA는 역동전에 함께하고 싶은 학생 누구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항목으로, 혼성피구·배드민턴·릴레이 민속놀이가 있다.

경기는 종목 별로 각 학교 건물과 운동장에서 열린다. 각 종목의 결승전은 온라인 중계도 진행한다. 고황대회운영위원장 김민수(지리학과 2021) 씨는 “예선전은 따로 중계가 없지만, 결승전은 외대 중계 플랫폼을 통해 중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학교가 항상 2위를 하고 있어서 올해 꼭 종합우승을 위해 대표팀에 많은 지원을 하고



트로이카가 오는 2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사진은 2023년 개최된 트로이카 사진.

(사진=대학주보 DB)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종목을 추가해 3개 대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역동전이 고연전처럼 동대문구

3개 대학의 전통으로 꾸준히 발전 되었으면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